

研究論文

#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진 관 훈\*

---

I. 서론	IV.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변동
II. 일제하 제주도의 해녀노동	V. 결론
III. 일제하 제주도 해녀노동과 제주도 농촌 사회의 변동	

---

## I. 서론

이 글은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변동을 제주도 해녀노동과 관련 지워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변동을 해녀노동의 변화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이유는 일제하 제주도 경제에서 해녀노동에 의한 소득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매우 컸었기 때문이다. 별다른 현금수입원이 없었던 식민지하에서 해녀의 생산활동은 농업생산 다음으로 큰 소득원이었고 각광받는 현금수입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하 제주도 경제는 해녀노동과 그들의 소득에 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이며 해녀들의 생산활동과 제주도 경제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식민지기 제주도 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

---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한국경제사 전공

1) 해녀의 명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海女’, 潛女(잠녀), ‘潛嫂(잠수)’가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녀’라고 부르기로 하고 자세한 논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겠다.

가 될 것이다.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이륙초기 단계에서 ‘해녀노동’이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해녀노동의 산물인 ‘해산물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안 지역 마을의 ‘富’가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취락 이동이 시작된다. 또한 해안마을의 富가 중산간 마을로 확산되어 농촌사회 전반의 경제력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해녀의 출가가 늘어나고, 도민들의 渡日도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주도 농촌의 소득은 증가하였고 제주도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해녀노동과 그들의 소득은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 해녀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어문학 측면에서<sup>2)</sup> 활발히 연구되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 연구로 강대원(1970)의 『해녀 연구』, 제주도(1996)의 『제주의 해녀』, 김영돈(1999)의 『한국의 해녀』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지조사와 해녀들에 대한 직접면담을 근거로 한 보고서 성격이 크다는 점이다. 이외에 제주도 해녀연구의 또 다른 주제는 민족 운동사적 연구들로<sup>3)</sup> 1930년대 제주도 해녀들의 항일운동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상의 연구들은 제주도 해녀생활의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해녀들의 노동, 생산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영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 글의 구성은 II장에서 일제하 제주도 ‘해녀노동’에 대해 서술하였다. 즉 해녀 노동의 특성과 경제적 가치, 그리고 ‘해녀의 出稼’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해녀노동의 경제적 가치상승과 소득의 증가로 인한 제주도 농촌 사회의 변동을 다루었고, IV장에서는 제주도 해녀노동의 변화에서 비롯된 일제하

2) 현재 ‘해녀’는 10,000여 개의 한국 표준직업 분류표에 의한 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계속되는 해녀수의 절대감소와 어획량 감소로 인해 해녀노동이 차지하는 지역 경제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이 해녀에 관한 연구가 사회학·인류학·민속학 연구로 편중되게 한 요인들로 보여진다.

3) 대표적인 것으로, 김창후, 「제일 제주인과 동아동향조합운동」, 『제주도사연구』 4 호(1995), 109~144 쪽; 藤永壯, 「1932년 제주도 해녀의 투쟁」, 『제주도의 옛기록』(우당도서관 1997), 83~123 쪽;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태화, 1995), 31~192쪽.

제주도 경제의 변동상황을 살펴보았다.

## II. 일제하 제주도의 해녀노동

### 1. 일제하 제주도 해녀 노동의 경제적 의의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신분적으로 천시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던 제주도 해녀의 노동이 사회·경제적으로 각광받게 되고, 나아가 제주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여 해녀소득이 증가했다는 점, 둘째, 제주도 해안의 황폐화로 인해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가 촉진되었다는 점, 다시 말하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채취기술을 가진 제주해녀들의 생산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진 점, 셋째 어로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해 해녀들의 생산성이 증가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 ①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

조선시대 제주도 해녀들의 채취물, 즉 전복, 소라, 해삼, 미역 등은 진상품이었다. 이 당시 해녀들의 생산활동은 무역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1900년경부터 일본 무역상들의 등장으로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성이 매우 높아져 상품으로 인정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환금을 목적으로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환금경향은 구한말에서 시작하여 식민지시대 초기에 이르러서 강화되었다. 부산과 목포를 근거지로 하는 일본인 상인의 등장으로 해조류, 조개류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때부터 해녀노동이 제주도 농촌의 현금수입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해녀들이 주로 채집하는 것은 전복, 해삼, 미역, 우뚝가사리, 감태, 툇, 뽕(모자반) 등인데 이것들은 각광받는 교역상품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또한 화학가공원료나 농사용 비료<sup>4)</sup>로도 요긴한 것이었다.

4) 해녀들은 듬복이나 비료용 툇 등을 채취하여 농사용 비료로 사용하였는데, 혹자는 이런 점을 들어

## ② 제주해녀의 出稼

제주도 해녀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sup>5)</sup> 본격적으로 해녀 활동이 시작된 것은 1880년대 말 일본인 잠수기업자들이 제주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 일본인 어업자들의 남획에 의한 제주도 어장의 황폐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 연안에서 일본인 출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1883년에 7월 25일에 조인된 ‘朝鮮國에 있어서의 日本人民貿易規則 제42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密漁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제주도 주변에는 일본 潛水器業者들이 일찍부터 출어해 오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제주지역에 출어하면서 제주도민과 충돌하게 되었고 급기야 일본 정부는 1884년 9월부터 1891년 11월까지 제주도에 출어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금어기간 중에도 密漁는 계속되어서 이로 인해 제주도 어장은 급속히 황폐해 갔다. 일본인 잠수기업자가 채취한 것은 주로 전복과 해삼이었다.<sup>6)</sup>

「한국수산지」 3권(1910)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전복은 연해안에 생산되지 않은 곳이 없고 거의 無盡藏이라고 할만큼 풍부하였으나 일찍 일본 잠수기업자의 도래로 남획이 된 결과 지금은 크게 감소하였다. 예전에 토착잠수부들이 이를 採取해왔으나 지금은 종일 조업을 하여도 1~2개를 얻는 데 불과하다. 잠수기업자는 약간 깊은 곳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

농사와 전연 별개로 해녀의 작업활동을 인식하는 일본해녀와 달리 제주도 해녀들의 어로활동은 농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 5) 옛 문헌에 나와 있는 해녀에 대한 기록은 적다. <濟州風土記>에서 李健은 “그중에서도 천한 것은 팍(미역)이다. 미역을 캐는 여자는 이를 즈녀라 부르고 2월부터 이후 5월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채취해 나오는데 남녀가 서로 뒤섞어도 수치스러움을 모름으로써 해괴함을 보여준다. 생복을 캐는 것도 이와 같다. 채취한 것은 관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팔아서 이를 해결한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泉晴—(1937)은 “어업은 일반적으로 賤業시되어 양촌의 남자가 海村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裸體로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10년 이래 경제의 중심이 해촌으로 옮겨진 이후는 良村사람들은 이제까지의 사상과는 달리 ‘어떻게 산촌사람들을 색시로 맞을 것인가, 바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들···’이라는 생각이 해촌사람들을 휩쓸었다” 라고 하고 있어 1900년대 이전에는 해녀노동이 사회적으로 천시받았음을 알 수 있다
- 6) 제주도의 전복과 해삼은 크기나 질적으로 상등품에 속하여 그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稻井秀左衛門, 『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1937), 13 쪽

다소의 어획이 가능하지만 예전과 같이 큰 이익을 얻기는 힘들다. 특히 本島 産은 모양이 거대해서 유명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소형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도 어장의 황폐는 제주도 해녀의 생산활동과 출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일본인 무역상의 등장으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해녀들의 생산욕구가 증가하였고, 일본잠수기업자들에 의한 제주도 어장 황폐화는 제주도 해녀들을 새로운 생산가능지로 이동시켰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제주도 해녀의 출가는 곧 생산영역이 확대와 생산활동 증가를 의미한다.

제주도 해녀 노동력의 이동, 즉 해녀의 출가는 1895년 부산 앞 바다 영도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해녀들은 조선 전역과 일본, 대련, 청따오기까지 출어하였다. 1910년대 전반의 출가자수는 2,500명, 1910년 말에는 부산, 울산까지 출가한 해녀수가 4,000명 정도였다

### ③ 어로 기술의 발달

일제하 제주도 해녀들의 어로기술의 발달은 雙眼 潛水鏡의 보급 확대에서 비롯되어 졌다.<sup>8)</sup> 雙眼 잠수경<sup>9)</sup>의 사용<sup>10)</sup>에 따라 수심 2~3m 수중작업 할 때의 시계가 20m까지 넓어졌을 뿐 아니라 눈의 피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녀노동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up>11)</sup>

이상에서 볼 때 해산물의 판로 확대와 현금가치 증가, 해녀출가로 의한 생산영

7) 1930년대 제주도 해녀들은 5월에 청따오기로 가서 8월 추석 전에 고향에 돌아오곤 했는데, 평균 300원씩의 수입을 올렸다. 당시 소학교 교사 봉급이 40 원이었다. 제주도, 앞의 책, 469 쪽

8) 원학회, 「제주도에 있어서의 해녀어업의 변모와 생산형태」, 『한국제주도의 지역연구』, 立正大學 日·韓공동한국제주도학술조사단(立正대학지리학연구실, 1988), 108 쪽

9) 수중안경인 제주도의 ‘눈’은 ‘족은 눈’과 ‘큰눈’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눈은 ‘족은눈’으로 소형 쌍안 수중 안경이다. ‘족은눈’은 제작지에 따라 ‘엄쟁이눈’과 ‘켓눈’으로 나눈다

10) 수중안경, 즉 ‘눈’을 언제부터 착용하게 되었는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확실하지 않다. 현재 생존하는 제주도 해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눈>을 쓰지 않고 조업했다고 한다. [생존하는 고령 해녀들의 증언은 제주도, 『口述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파피루스, 2004) 참조 여기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 해녀들에게 ‘눈’이 보급된 시기는 1900년대 이후라고 여겨진다.

11) 수중안경의 착용은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물안경이 발명된 이후에도 해산물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제주도, 앞의 책, 174쪽.

역과 노동기회의 확대, 여기에 어로장비의 개선이 추가되어 해녀 노동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제주도 해안마을에 많은 현금이 유입되어 이들 마을에 ‘富’의 축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 2. 제주도 해녀노동의 특성

제주도의 해녀는 일본의 해녀보다 추위에 강하다. 일본해녀는 추운 겨울 한 달에 7일정도 밖에 조업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제주해녀는 15일에서 20일까지 물질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임신중이거나 월경 중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조업을 한다 또한 제주도 해녀노동은 농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제주도 해녀들은 판매를 위한 해산물, 즉 해조류와 조개류 등의 채취뿐만 아니라 밭의 비료로 쓰이는 ‘뚝박’과 ‘뚝’ 등의 해조류도 채취하였다. 식민지시대 제주도 농업은 금비사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sup>12)</sup>. 이런 상황에서 ‘뚝박’, ‘뚝’과 같은 해조류 비료를 채취하는 것은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고 비료가 넉넉하지 못했던 제주도 농업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제주도 농촌에서는 여아가 8세가 되면 바다물에 들어가는 연습을 시작하여 10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테왁’을 얻고, 14세가 되면 안경, 호미, ‘빗창’을 얻어 본격적인 물질<sup>13)</sup>을 시작한다.<sup>14)</sup> 16세가 되면 해녀조합의 정식 회원이 되고, 이후 50세까지 계속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제주도 해녀는 16세로부터 35~6세까지가 전성기이다. 이후 80세, 혹은 90세 고령이 될 때까지 물질을 계속 한다.<sup>15)</sup>

12) 제주도 농업은 ‘거름농사’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 농업에서 ‘금바’가 보편화된 시기는 1960년대 이후라고 여겨진다. 그 이전에는 ‘뚝거름’이라는 퇴비와 ‘재’, ‘녹바’만이 작물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비되어 졌다. 이처럼 비료가 풍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뚝박’, ‘뚝’과 같은 해조류가 밭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13) ‘물질’이란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작업 활동을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14) 한림회는 제주도 해녀들의 기술습득과정을 바다와 익숙해지는 시기, 해엄치기를 배우는 시기, 자맥질을 배우는 시기, 불턱의 한 자리를 차지하여 정식으로 입문하는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림회, 「불턱」, 『제주의 해녀』(제주도, 1996), 115~122쪽.

15) 제주도 해녀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서 보면, 젊은 해녀들의 수는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80대 심지어 90세 고령해녀들의 물질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주도, 『口述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파피루스, 2004)를 참조할 것

한 번 물 속에 잠수해 있는 시간은 1분5초에서 1분50초가 평균이고 최고 3분까지 할 수 있다. 잠수심도는 20m까지 할 수 있으나 대략 5.5m에서 작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잠수를 30회 내지 70회 정도를 반복하면서 작업하고 난 후 물으로 상륙한다. 그리곤 해변가 ‘불턱’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 다시 작업하러 물속으로 들어간다. 몸이 튼튼한 사람은 하루에 3회 또는 4회 정도까지 반복할 수 있다.<sup>16)</sup>

제주도 농촌에서 농번기와 해산물의 채취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제주도의 해녀들은 농사노동과 어로활동 즉 ‘물질’을 동시에 해야만 했다<sup>17)</sup> 해녀들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 8월에는 아침 일찍 2시간 정도 밭에서 김매기를 한 다음, 물질 때가 되면 바다로 향한다. 오전 물질을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밭으로 가서 김매기를 하다가 다시, 오후 4시쯤 바다로 가서 작업을 하다가 해질 무렵 귀가한다.<sup>18)</sup>

해녀들의 연중 작업은 해산물의 채취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해산물의 채취기는, 해삼은 1~4월, 전복은 5~8월, 天草는 1~3월, 미역은 2~5월(마을 규약에 따라 1~4월, 3월 중순~4월)로 거의 연중 내내 작업을 해야 한다<sup>19)</sup>

16) 제주도 해녀들의 기술습득과정과 어로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미국국무성 용역 보고서인 **Hermann Rahn**, “The Diving Woman of Korea and Japan”, *Scientific American*, 1967. 에도 소개되었다.

17) 당시 제주도해녀들은 97%가 밭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녀소득은 다시 밭을 구입하는 데 소비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해녀들은 농업과 ‘물질’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이것이 일본해녀와 다른 점이다.

18) 그렇다면, 이때 제주도 남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일부 기록물들을 보면 ‘해녀를 아내로 둔 제주도 남자들은 여자 대신 아기나 보고, 술과 게으름, 방탕으로 일생을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라 보인다. 제주도 농업형태를 보면 여성노동 비율이 57.5%(농사인 경우 남자대 여자의 노동투입비율은 7 : 3인데 비하여 발농사지대에서는 평균 4 : 6으로 나타나고 있다)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와 남자의 역할 분담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토양 특성상 자갈이 많고 수전 지역에 비해 잡초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노동 투입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화전 일구기, 밭갈기, 진압, 각종 운반 등에 있어서는 남성노동력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여자가 물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도 남자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 가령 비료로 쓸 ‘똥박’을 채취할 경우 혹은 감태 등과 같은 해조류 채취 작업에 있어서는 남녀 협업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아래 <표 1>은 제주해녀의 작업일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 1> 제주해녀의 월별평균 작업일수

월 별	성산읍 오조리	서귀포시 대포리	구좌읍 연평리	대정읍 가파리	한경면 용수리	평 균
1월	9.6 일	13.1 일	4.4 일	6.5 일	4.1 일	7.54 일
2	9.6	9.3	6.3	8.6	5.3	7.82
3	12.6	8.7	7.3	12.6	13.4	10.92
4	16.6	8.5	10.2	14.6	7.8	11.54
5	12.3	7.8	12.5	13.5	3.4	9.90
6	14.0	10.9	13.7	16.8	8.3	12.74
7	17.7	11.6	16.5	16.5	12.1	14.88
8	10.6	8.4	15.0	16.5	13.2	12.74
9	7.6	5.2	14.0	14.2	5.6	9.32
10	7.0	4.3	9.7	12.1	3.1	7.24
11	6.3	5.4	4.7	8.7	3.6	5.74
12	7.0	8.1	6.6	6.2	0.8	5.74
합 계	130.9	101.3	120.9	146.8	80.7	116.12

자료: 제주대학교, 『海村生活調査報告書』(1978), 102쪽.

<표 1>를 보면, 월별로 혹은 지역에 따라 해녀들의 작업일수가 차이가 난다. 평균적으로 보면, 3월에서 9월까지의 작업일수가 가장 많고, 지역적으로는 해안지역 혹은 부속도서지역 해녀들의 작업일수가 가장 많다. 물론 <표 1>은 1973년에 조사한 것으로 일제시대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식민지기 해녀들의 작업일수가 1973년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재래해녀복(소중이)을 입고 ‘물질’을 하면 물속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최대한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작업일수가 다르고 작업횟수도 달라진

19) 일본해녀들은 겨울철과 같은 휴한기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 연중 6개월 정도를 ‘물질’하는 데 반해 제주도 해녀들은 4계절 모두 ‘물질’한다.

다. 이는 재래 해녀복을 입었을 경우 수온의 변화에 따라 추위를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1, 2, 10, 11, 12월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1회 작업시간이 30분 정도이며 그 외의 달은 40~60분이다.<sup>20)</sup>

<표 2>는 1960년 조사 기록이다. 그런데 <표 2>의 조사지역인 우도는<sup>21)</sup>, 예나 지금이나 제주도에서 해녀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이곳은 연중 2/3 이상 물질을 하고, 3월에서 8월까지의 쉬지 않고 물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도해녀의 잠수표 (각월은 음력)

월 별	월별잠수일수	일별잠수횟수	채 취 물
1월	20일	2회	미역, 우뭇가사리 다소
2	14	2회	미역, 모자반 다소
3	28	2회	모자반, 미역 다소
4	28	2회	되는 대로
5	28	3~4회	우뭇가사리, 그밖에 되는 대로
6	28	3~4회	전복, 소라
7	28	2~3회	감태, 기타
8	28	2~3회	감태, 기타
9	10	1회	감태, 기타
10	10	1회	감태, 기타
11	7	1회	전복, 소라
12	7	1회	전복, 소라
합계	236		

자료: 泉晴一, 『제주도』(1960), 184쪽.

20) 제주도, 앞의 책, 162쪽.

21) 이곳에는 90세 이상 고령해녀가 현재에도 ‘할망바당’에서 ‘물질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자녀들의 학업이나 기타 생활 주거를 위해 제주시 지역에 자기 소유의 주택,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2004, 앞의 책 참조

### 3. 제주도 해녀의 出稼

1910년대 해녀 출가 상황을 여러 형태별로 살펴보면<sup>22)</sup>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형태에는 客主의 모집에 의한 방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絶影島에 정착하며 일본인 무역상 밑에 있으면서, 매년 음력 12 월경 제주도 각지에서 해녀를 모집<sup>23)</sup>하여 전대금을 건네주고 계약한다. 해녀는 기선으로, 뱃사공, 감독자 役 남자는 어선으로 본토에 도항하여 부산에서 합류한 후 출가지로 떠난다. 두 번째 형태는 독립 출가인데, 해녀의 남편 2~3명이 공동으로 어선을 매입하여 가족, 친척 등의 해녀를 승선시켜 출가지로 가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6 대 4 정도로, 객주의 모집에 의한 것이 많았다. 해녀 10명에 시중드는 남자 5명인 경우, 1 漁期 수입은 대략 870엔 정도이고 지출은 731엔<sup>50</sup> 전으로 차액은 138엔<sup>50</sup> 전이었다 이것을 균등 분할하면 1인 평균 9엔<sup>23</sup> 전 정도였다

출가로 인한 해녀소득은 1922년에 19만엔, 1923년 22만엔, 1924년 조합원수 5,932명으로 성장해 나갔다.<sup>24)</sup>

1924년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은 일본으로의 해녀출가를 활성화시켰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해녀는 기선을 이용하여 출가하였는데, 기선에 의한 일본 본토로의 출가는 쓰시마(對馬島)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大阪을 경유하였다. 당시 大阪과 제주도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朝鮮郵船, 尼琦汽船, 鹿兒島商船 등 3개 회사 선박이 경쟁적으로 여객을 실어 날랐다. 이 기선들은 도중에 모지, 시모노세키 등지는 기항을 하지 않으면서 가장 값싼 운임으로 일본 내륙으로 상륙하게 해 준 것이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까지 해녀들은 철도로 이동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 해녀가 일본에 진출했던 사례들 중 최초의 사례는, 김녕

22) 田口禎熹, 「濟州道の海女」, 『朝鮮』218호(1933), 81~82쪽

23) 해녀를 모집하는 조선인 객주 뒤에는 일본인 무역상(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海藻상인)이 있었고 그들의 중간착취는 가혹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비참한 상황에 대한 海女救濟와 공동판매(객주의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조합이 어획물을 종합해서 중매인을 경매한다든지 어시장에 판매를 위탁하는 제도)를 목적으로 하였다.

24) 그러나 출가 해녀의 급증은 현지 어업 조합과 많은 갈등을 야기시켰고 점차 해녀조합의 성격도 바뀌어 갔다(예를 들면 濟州島司의 조합장 취임, 조합의 御用化). 이로 인해 제주도 해녀의 투쟁이 유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藤永壯, 앞의 책 ;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앞의 책을 참고할 것)

사공 김병선이 해녀를 고용하여 東京 미야케지마 지역에 출가하여 조업하였던 것인데, 그 후 계속 능력을 인정받아 1932년 당시 동경 미야케지마에서 240명 해녀가 고용되어 작업했었다.

출가해녀들의 소득이 좋았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일례로, 1929년 당시 제주도내 해녀 7,300명이 도내 연안에서의 생산활동으로 약 25만엔을 벌어들인 데 반하여, 일본으로 출가한 해녀 3,500명이 40만엔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제주도 해녀의 출가와 도내 잠수 활동으로 제주도 농가에서 해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갔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신분적 대우도 점차 개선되어 갔다.

<표 3> 출가 해녀 현황

연 도	출가해녀수	송금액	비 고
1929	4,310명	-	
1930	3,860	908,000円	
1931	3,950	687,350	
1932	5,078	1,100,000	일본 1,600인 국내 3,478인
1936	3,360	770,000	
1937	4,402	-	일본 1,601인 국내 2,801인
1939	4,132	-	일본 1,548인 국내 2,584인

자료: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1939)』, 113쪽

<표 3>에서 송금액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출가 해녀들이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기가 끝나 돌아올 때 현금을 소지하고 돌아오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출가한 해녀 분포를 보면, 동해안지대가 가장 조밀하며 북서부 해안지대가 그 다음이고, 남부해안지역, 북부해안지역 순서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안 지형 및 해저 지형, 조류, 풍향 등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일본으로 출가한

제주해녀는 동해안 지역에는 거의 없었고 주로 태평양 연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제주도 해녀의 우수성이 발휘된 것은 1900년경부터였는데, 특히 일본 해녀와의 경쟁에서 이겼던 사례가 있다. 즉 강원도 부근 바다에서 당시 이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일본 해녀와 경쟁하여 마침내 이들을 쫓아내고 한반도 연안을 완전 장악하게 되었다.<sup>25)</sup>

이상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지가 척박하여 토지 생산성이 낮았고 별다른 현금수입원이 발달하지 않았던 제주도에서는 해녀노동이야말로 현금화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농가수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4> 제주도 농가 수입 현황(정의면 온평리, 1926년)

(단위 원 비율%)

	주업 (농업)수입	부업수입 (총수입중의 비율)		판매 (부수입 중의 비율)		품목	피고노 임수입	총수입
			(비율)		(비율)			
자작농 중농	303	220	(42.1)	220	(100.0)	해녀어업	-	523
소농	93	80	(42.6)	80	(100.0)	해녀어업	15	188
자작겸소작농중농	150	160	(47.1)	160	(100.0)	해녀어업	30	340
소농	67	80	47.9)	80	(100.0)	해녀어업		167

자료: 藤永壯, 앞의 글 90쪽

위의 <표 4>는 1926년 정의면 온평리 지역 농가수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도 타 지역에 비해서도 해녀들이 많았던 정의면 온평리의 경우, 해녀 어업 기타에서 얻어지는 부업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산의 생산물인 해산물들은 전부 판매되었다. 따라서 당시 급증해 가는 제주도 농촌의 현금 수요가 대부분 여기에서 충당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제주도 해녀들의 도내 잠수 활동과 출가로 인한 현금소득이 제

25) 제주해녀는 조업시 테왁을 이용해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분동을 사용하지 않고도 깊이 잠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동해녀와 같이 해녀배나 사공이 필요 없다. 따라서 채취 비용이 싸다. 그러나 일본 伊勢해녀는 1개월 조업 중 겨우 1주일밖에 견디지 못하는 데 비해 제주해녀는 15일간 조업이 가능하였고(경상북도 울산군 포항 등지) 하루 조업 시간도 월등히 길다. 결국 조업 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1929년 이후 한반도에서 일본 伊勢해녀들을 완전히 축출했다.

주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안지역일수록 절대적이었고 해안마을의 부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 III. 일제하 제주도 해녀노동과 농촌사회의 변동

일제하 제주도 농촌사회의 변동 과정을 보면, 먼저 해녀 경제활동의 가치증가로 해안마을의 부가 상승하게 되면서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로의 취락이동이 진행된다. 이러한 해안마을이 부는 점차 중산간 마을로 확산되고 점차 제주도 농촌전역의 경제력 상승을 가져온다. 제주도 농촌의 경제력 상승은 이어 교통의 발달과 교역의 발달로 이어지고 노동력 이동 즉 도일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제주도민의 도일은 전통적인 농업생산 구조 속에서 노동기회, 소득 창출기회가 부족하였던 잠재적 실업군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도 사회는 유례에 없던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한 셈이 되었고 그 소득원에서 많은 현금을 공급받게 되었다. 1930년대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 현상<sup>26)</sup>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생겨난 것이다. 한편 도일 증가로 인한 노동력 공백 문제는 남아 있는 노동력 투하 방식의 변화, 즉 재배작물의 변화를 가져온다. 재배작물의 변화란, 여성노동투입비율이 높은 제충국, 박하, 양잠, 고구마 등의 재배가 확산되어 감을 말한다. 이들 작물들은 모두 다 환금작물로서 당시 제주도 농촌사회에 급증하고 있던 현금수요를 충당시키기에 용이하였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성노동 투입비율이 높아 제주도민의 도일로 인한 노동력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종의 효과가 내재되어 있었다.

#### 1. 聚落의 이동

제주도의 聚落<sup>27)</sup>移動은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상승,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발

26) 1930년대 제주도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농업생산성과 생산량의 증대, 외부와의 이출입, 교역 규모 증가, 출가와 도일로 인한 송금액과 소득증가로 인한 상업활동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달,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지점인 해안마을에서 경제적 기회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기회를 찾아 마을과 사람이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기존 촌락은 변모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촌락을 생성시켰고 촌락경관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나갔다.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해안지역은 경지면적의 영세성과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열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해, 중산간 지대는 비교적 넓은 경작지와 가능지(火田, 개간지)를 가지고 養畜 등의 부업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인 면에서 보다 나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이동농지지대의 경작지 방목지 상실로 중산간 지역 생산터전의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반대로 해안지역에서는 교역의 증가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향상하여 점차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제주도 촌락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제주도의 취락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상으로 크게 세 지대로 나눈다.<sup>27)</sup> 즉 해안지대와 산간지대(산림지대) 그리고 그 중간지역인 중산간 지대이다. 오홍석(1974)에 의하면 제주도 취락의 기원은 북서해안의湧水帶를 중심으로 성립하였다고 한다. 고려 이전의 제주도의 취락은 생활용수의 확보가 가장 용이하며 해상교통의 거점지인 해안지대에 주로 분포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오면서 왜구의 잦은 침입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산터전을 확보해야 했는데, 주로 이때 산간의 개척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중산간 지역으로 취락이 이동한다. 중산간 지대는 왜구의 침입에도 안전하고 넓은 경작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은 이후로 유림과 부농이 포진하며 중심지역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 즉 제주도 일주신작로 개설 일본과의 교통발달 및 도일증가로 해상교통의 거점지가 되고 이로 인해 해안지역이 부의 증가, 경제

27) 聚落은 가옥을 주축으로 하여 성립된 주거형태 전반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연구는 마쓰다 이치즈 『濟州島の聚落』, (弘詢社, 1976), 139~145쪽; 오홍석, 『濟州島の聚落에 관한地理學的 研究』, (1974), 59~64쪽.

28) 久間健一은 삼림지대, 산간지대, 중간지대, 해안지대로 사분하였고 마쓰다 이치즈는 삼림지대 중간지대, 해안지대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현재까지도 유용하다. 예를 들면 1999년 4월 제주도특별법개정시안에서도 해발200m 이상을 중산간지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은 한경면과 같은 지역인 경우 해발고도는 낮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산간지대로 볼 수 있다.

적 기회증가, 교환경제의 이점 증가, 경제적 기회 증가로 다시 해안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쓰다<sup>29)</sup>는 제주도 취락의 이동을 두 가지로 보았다. 즉 구심적 이동과 遠心的 이동이다. 求心的 이동은 해안지대로부터 산간지대(삼림지대)로, 경지, 목야를 찾아 上進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적 이동이란 그 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해안지대로, 특히 임해지역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심적 이동은 일제시대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1917년 제주도 일주도로가 개설되면서 구심적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이전에는 해안으로부터 5~10km의 내륙부에 취락이 가장 발달하여 이곳을 제2환상 취락 분포대라고 한다. 이 지역은 倭侵에 대해 안전하고 경제적 생산의 기회(경지획득)가 더 많아 유서 깊은 양반, 부농이 많이 살고 있었다. 반면에 임해지역은 어업기술이 낙후하여 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여 빈민, 천민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 구분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계층적인 구조도 포함한다. 당시는 어민, 해녀에 대한 사회적 풍조가 낮아 차별적이었다.

또한 중산간 지역은 경제적으로 중심 지역일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중심지역이었다. 제2 환상 취락 분포대의 각 취락을 연결하는 官道가 不連續 環狀을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해안지대에는 취락을 마련하지 않고 내륙에서 농목을 주로 하고 중산간 지대에 조밀한 취락을 이루었다.

그러나 1930년 현재 취락밀도의 최대지역은 임해지역으로 1,500명 이상의 지역은 해안지대에 입지해 있었다. 또한 1917년 도민의 4년 간 부역에 의하여 개통된 일주 환상도로는 이후, 제주도 지역 교통의 동맥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발달한 항해교통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경제활동의 기회가 증가하여, 촌락의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해안마을은 일본으로의 출가 출발지이며 어업의 근거지이다. 일본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제주, 서귀포, 한림, 모슬포, 성산포, 김녕, 조천, 표선이 지정항 또는 지방항이 되었고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육상교통 즉 일주도로와 해

29) 마쓰다 이즈즈, 앞의 책, 128~150쪽.

상교통이 만나는 지역으로 촌락이 이동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으려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하나로 보아진다.

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그때까지 해안지대는 개항이전 빈농과 어민이 거주하였으므로 내륙에 거주하던 유림계층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 해녀활동 자체가 찬박한 작업으로 인식되었고 무엇보다도 교역이 부진하여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 이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인식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자연히 해안마을이 산간마을에 비해 경제적 기회가 증가된다. 아울러 지방행정기구들도 해안마을로 이동하고 이때부터 해안마을이 각종 경제적·행정적 중심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 2. 제주도민의 渡日

식민지 시대 조선인의 일본 이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sup>30)</sup> 일본으로의 유입 조건으로 조선과 일본간의 생활수준의 격차와 일본의 이민 정책을 들고 있다. 경제적 요인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주가 제공하는 기대 소득의 증가치를 의미한다. 기대소득의 차이는 실질임금의 차이와 실업률 그리고 이주비용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일본과 조선의 실질 임금 격차의 확대, 일본 실업률의 하락, 또는 이주비용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조선과 일본에서의 기대 소득의 차이가 확대되어 이주 희망자가 늘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이동이 발생하고 이주가 제공하는 기대 소득이 노동력 이동이 요인이라는 사실은 제주도 농촌 노동력의 이동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제주도민의 도일현상은 제주와 일본과의 생활수준에서 차이가 나고 도일로 인한 기대 소득이 컸었기 때문에 대규모 잠재 실업군<sup>31)</sup> 이동하게 된 것으로 이해

30) 정진성·길인성, 「일본의 이민정책과 조선인의 일본이민 : 1910-1933」, 『경제사학』, 제25호(1998), 189-216 쪽

31) 도일 농촌노동력의 성격을 유휴노동력 혹은 잠재실업군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완해야할 여지가 많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유휴노동력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노동력 이탈 후 아무런 임금의 변화나 생산력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많은 제주도민의 도일 후 노동력의 부족현상과 그로 인한 임금상승 등과 같은 문제가 간혹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는 있으나 뚜렷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생산력 측면에서는(수익성추구의 확장에 따라) 증가현상이 나타났고 농촌임금 역시

할 수 있다.

제주도민 도일의 직접적인 동기는 도내 노동기회의 부족현상과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로 인한 이주비용 하락이라 할 수 있고 이와 아울러 해녀노동으로 인한 소득의 상승이 이주비용과 취업 전 초기체제 비용, 도일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각종 기회비용의 부담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주도민의 도일은 초기 일본이 자국 식민지인들을 일본 본토로 대량 유입시키려는 정책과, 제주도 농촌 내부에 잠재하고 있던 유희 노동력이 선진 노동시장으로의 진출과 맞물려지면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는 노동 기회가 부족하던 제주도 농촌 내부의 잠재적 실업인구가 새로운 소득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대에 소요되는 비용, 즉 도일 비용 저하로 이러한 기대 욕구는 훨씬 높아졌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도일의 실천은 ‘契’ 및 친족의 원조에 자극 받는 경우도 많았다. 친족 및 계원들의 출가 귀환자들에게서 도일자금을 알선 받거나, 조합이나 계에서 출가 희망자에 대하여 도항 여비의 융통, 취직, 숙박소 소개 등의 알선을 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출가가 용이했다. 대부분의 출가자는 제주도 공제조합원<sup>32)</sup>이었고, 조합은 일본 출가자들에게 취업소개, 숙박, 주거편의 알선, 근검 저축장려, 위생사상 보급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노동자의 능률, 소질을 향상시키고, 출가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sup>33)</sup>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일본으로의 이동비용의 하락이다. <표 5>에 의하면 제주도내 각 항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내부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으로의 연결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도 농촌내의 유희노동력 존재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이 조합은 大阪주재 제주도민수가 증가하자 1928년 5월 民官이 함께 조직한 것으로 大阪주재 제주도민들의 친목, 보호,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35년 5월 大阪주재 제주도민들의 교화, 구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새로이 조직되어 기존공제회를 계승하였다. 본 회의 사무실은 제주도와 大阪 두 곳에 설치하였다. 濟州島廳, 앞의 책, 33쪽.

33) 마쓰다 이즈즈, 앞의 책, 115쪽.

&lt;표 5&gt; 제주도 각 항구별 일본왕래 현황(1929)

항구별	승선인원	하선인원	합 계	항구별	승선인원	하선인원	합 계
성산포	1,659	1,653	3,312	외도	1,869	1,216	3,085
세화	21	47	68	애월	1,699	1,562	3,261
김녕	685	781	1,466	한림	2,780	2,413	5,193
신창	-	15	15	협재	-	2	2
고산	1,195	879	2,074	화순	753	321	1,074
모슬포	1,628	1,700	3,328	중문	959	453	1,412
조천	1,916	1,646	3,562	대포	83	153	236
삼양	73	85	158	서귀포	1,055	1,705	2,760
산지	3,217	3,413	6,630	위미	2,357	1,129	3,486
표선	568	643	1,211	합계	22,517	19,816	42,333

자료: 釜山商業會議所, 『濟州島とその經濟』(1930), 31 쪽

1920년대 제주도에 11개 항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도일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했고, 渡日 비용의 하락으로 이동으로 인한 소득 기대의 상승을 불러 일으켜 도일 현상을 증가시켰다.

제주도민의 본격적 도일이 시작된 것은 1919년 阪神 공업지대로의 모집에 응하면서 비롯되었다. 1922년에는 남자가 3천1백98명, 여자가 3백5명 총 3천5백2명이 도일하였다. 1925년 도일자는 1만5천9백6명이고, 1927년에는 1만9천2백4명이며, 1933년에는 2만9천2백8명이며, 급기야 1939년에는 5만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즉 1가구에 1명씩 도일한 셈이다 또한 도일 제주도민 송금액이 제주도 경제의 큰 몫을 담당하게 되는 등 사회전반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1926년 우편국을 통한 송금액이 77만4784円이며, 1928년에는 128만7140円으로, 1인당 평균 40엔이다. 1932년에는 68만5155円, 1933년 85만000円이었다 이외에 귀향시 직접 가지고 온 액수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제주도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표 6>를 통하여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연도별 송금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6> 연도별 송금 현황

(단위 원)

연 도	총 송금액	1인당 송금액	연 도	총 송금액	1인당 송금액
1926	774,784	27.06	1931	715,012	21.65
1927	956,571	31.36	1932	685,155	18.96
1928	1,289,714	35.54	1933	857,919	29.39
1929	1,243,714	35.20	1934	1,053,940	21.05
1930	799,180	25.14	1935	1,006,985	20.88
			1937	1,087,518	23.40

자료: 濟州島廳, 앞의 책, 24~25 쪽

총 송금액과 일인당 송금액 모두 1928년과 1929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1930년부터 줄어드는데, 이것은 일본경제의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가 회복되면서 1933년부터 점차 증가한다. 그러나 일인당 송금액은 1933년을 제외하고는 1931년부터 작은 수준이어서 도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항자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도항자 수가 증가하는 1929년까지의 송금액이 증가하였고 이후 일본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총 송금액과 일인당 송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1933년의 경우 도항자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액은 줄어들었고 일인당 송금액은 이전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렇듯 총 송금액과 일인당 송금액은 일본내의 경제사정, 도항자와 귀환수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도민의 도일이 제주도 농촌사회와 제주도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한 가구에 한 명 꼴로 도일하면서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남자노동력의 품귀현상을 가져오고, 임금상승, 노동력 부족현상 발생이라는 노동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도일 제주도민으로부터의 현금 송금 혹은 귀향시 가지고 오는 현금으로 도내 현금 보유량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이다.

또한 제주도민의 도일확대로 노동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쳤다. 도일 제주도민의 구성을 보면 생산력이 가장 왕성한 20~50세 사이 남자가 가장 많고, 지주 및 자작농의 도일도 많아 전도 1,141호 지주 가운데 451호, 자작농은 전체의 55% 인

999호가 도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이들은 초기에는 주로 휴한기에 도일하여 단기간 노동하다가 다시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휴한기와 상관없이 일본 경제상황에 따라 도일하였고 설령 귀향하였다 하더라도 再渡日을 위한 휴식을 핑계로 생산활동을 회피하는 사회 문제로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도일증가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품귀현상은 농업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당시 농가 1호당 1정 4단보를<sup>35)</sup> 1.5~2명, 그것도 여자, 노인층이 생산을 담당하는 실정이었다고, 이로 인해서 경작지가 황폐화되는 등 농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농업 생산력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여성노동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정된 면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금 작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기존작물들도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할 만한 신품종으로의 대체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도일 노동자의 현금 송금으로 인한 소비를 포함한 여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다. 우체국을 통한 송금과 이외에 귀향 할 때 직접 가지고 온 액수까지 합치면 상당한 것이었다. 이는 제주도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다주었다. 1930년대 중반 제주도 농가의 가계 구조는 식민지 시장 경제로의 편입 결과 나타난 현상, 즉 생필품의 수입 급증과 맥류, 백미, 현미, 백미, 만주주, 碎米 등 곡류이입의 증가 등으로 현금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은 단순히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대표적인 변화로 쌀 소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33년 제주도 이출입 무역총액은 1백 56만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백미 16만,871円(9,274석), 쌀래기 35,280원(1,960석)이었다<sup>36)</sup>. 당시 도내 쌀 생산량은 2만 천 백

34) 도일 제주도민의 계층구성 (1934)

구분	지주	자작	자작점소작	소작
도향호수	451	7,999	4,733	7,868

자료: 마쓰다 이즈즈, 앞의 책, 110-119쪽.

35) 점차 휴한체계의 축소로 1호당 2.8정보로 늘어남.

36) 마쓰다 이즈즈, 앞의 책, 118쪽.

10석(이중 수도는 1만234석)으로 이입미 1만,234석을 합쳐 총 3만6,044석을 소비하는 것으로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쌀 소비량이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곡중심의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더욱더 환금작물, 상품작물의 재배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쌀 수입의 증가와 함께 소맥분이 10만5,000엔(10만5,000관), 청주가 2만2,880엔(220석), 소주가 1만7,880엔(590석), 맥주·설탕 2만673엔(14만7,694관), 기타 일용 잡화류, 직물, 화장품, 고무신, 건축재료 등의 수입이 늘어나 이·수출 총액 1백10만엔을 40여만엔이나 초과하는 入超 경제체제가 되었다. 이 부족분을 충당하게 한 것이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이였다.

이외에도 제주도민의 도일로 인한 영향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일본의 선진 농업, 우량 품종, 선진 근로 의식 등을 간접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귀향하여 농사에 재투입되었을 때 농업기술이나 의식이 선진화되어 제주도 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을 들 수 있다.

### 3. 환금작물 재배의 확산

1930년대 제주도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재배작물의 변화이다. 즉 주곡작물 중심에서 벗어나 환금작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보면, 우선 絶糧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해녀노동의 활성화로 인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부의 증가현상이 확산되면서 곡물 소비와 유통이 원활하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먹고살기 위한 곡물을 재배하기보다는 현금화가 쉬운 작물을 재배하여, 돈으로 곡물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전략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농촌의 현금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 시장체제에 편입되면서, 저렴한 농산물, 해산물과 상대적으로 고가의 공산품을 맞바꾸는 소비 형태가 일반화되게 된다. 이로 인해 자급자족상태에서 탈피하여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현금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자연히 이를 보충하기 위한 환금작물 재배를 늘려가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도일로 인한 노동력 공백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배작물의 전환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일, 해녀출가 등으로 인한 노동력 유출로 농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동력 투입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를 만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여성노동의 투입비율이 높은 작물<sup>37)</sup>, 즉 제충국, 면화, 양잠, 박하 등의 재배를 확장시켜 나가게 된 것이다.

아래 <표 7>, <표 8>에서 1913년과 1930년대의 재배작물을 비교하였다.

<표 7>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1913년)

(단위: ha, 石)

작물종류	재배면적	10a 당 수확량	수확고	
곡류	粳米	335.8	0.93	3,131
	糯米	7.7	0.94	72
	陸稻	1,914.0	0.31	9,206
	大麥	18,150.4	1.64	298,373
	小麥	2,328.2	0.55	12,765
	裸麥	1,067.9	0.91	9,768
	계	21,556.5	-	321,169
두류	大豆	1,654.9	0.39	6,397
	小豆	73.5	0.21	154
	기타 두류	73.5	0.21	154
	계	2,246.3	0.37	8,359
서류 및 소채류	고구마(甘藷)	599.8	308.5 貫	1,850,143 貫
	감자(馬鈴薯)	7.6	134.5	10,223
	무우	104.2	51.7	53,864
	배추	163.2	133.5	217,812
	오이	52.3	70.7	36,953
	계	927.1	-	2,168,995
잡곡	조	15,259.5	1.35	206,087
	피	1,040.0	0.86	8,957
	기장(黍)	15.8	0.5	70
	蜀黍	1.5	0.53	8
	玉蜀黍	1.5	0.53	8
	蕎麥	2,387.7	0.95	25,092
	계	18,765.7	-	240,516

자료: 남인회, 『제주 농업의 100년』(태화, 1987), 43~46 쪽

37) 이 시기 환금작물의 재배가 확산되어 가고 주곡작물 재배는 축소되어 가운데, 유독 ‘조’의 재배는 확대되어 간다. 이것은 ‘조’ 재배의 경우 여름철 남녀 노동투입 비율이 2 : 8일 정도로 여성노동비율이 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8> 주요 작물의 재배 현황과 생산량(1930년대)

작물명	1936년				1932년~1936년 5개년 평균			
	작부반별	수확고	반당		작부반별	수확고	반당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도	807.7 町反	8,905 石	1,118 合	33.54 円	914.4 町反	10,465 石	1,152 合	27.07 円
육도	2,553.5	11,045	424	10.60	3,774.9	17,566	451	8.86
대맥	24,803.9	37,082	1,278	10.47	23,928.6	295,634	1,230	8.41
소맥	1,674.4	9,422	563	8.69	1,621.6	16,216	529	6.81
나맥	1,342.6	10,696	797	10.51	1,283.8	10,031	799	9.25
조	30,546.3	173,201	567	5.87	30,424.3	188,545	622	5.64
대두	6,041.0	22,105	363	4.78	6,012.0	18,091	301	3.56
고구마	431.6	10,129,371 貫	234 貫	18.72	3,829.8	9,047,753 貫	236 貫	19.76
교맥	5,258.7	17,987	342	3.42	5,196.9	26,289	506	5.15
완두	116.4	789	678	10.1	138.7	760	564	7.88
청완두	104.3	813,540 근	780 근	11.70	38.3	372,528 근	1,096 근	16.44
제충국	211.2	21,435 관	10 관	17.00	105.4	11,512 관	12.5 관	40.52
박하	106.5	1,654	3	24.18	61.2	1,866 근	4 근	34.76
면	2,736.1	2,842,803	67	10.92	2,474.2	1,991,010	83	11.66

자료: 위의 책, 40~46쪽

1913년과 1930년대 주요 작물의 재배 현황과 생산량을 비교·분석해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품작물 즉 고구마, 제충국, 박하, 청완두 등의 재배 확산을 들 수 있다. 또한 주곡 작물 중심의 전작에서 탈피하여 환금작물로 재배작물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1930년에 이르러 제주도 농가가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 수준의 단계에서 벗어나 가계에 필요한 현금 수입 증대를 위해 상품작물, 환금 작물의 재배 확대로 전환하는 현상 다시 말하면 밭작물 중심의 단일 재배 구조에서 벗어난 재배 작물의 다각화를 통한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음을 말해준다. 1930년대 주요작물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면적 당 현금수입이 가장 높은 제충국, 박하, 그리고 식량 대체 작물 겸 상품 작물인 고구마 아울러 육지 면, 양잠 등이 증가되고 있다

### IV.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변동

식민지기 제주도 해녀 생산 활동이 제주도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갈래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교역의 증가로 인해 해산물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해녀노동의 경제적 가치 상승 → 해안마을의 ‘부’ 상승 →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로의 ‘부’의 이동과 취락 이동’ 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표 9> 시대별 제주도 농민의 생활비 비교(1939년)

(단위 원)

종류	고지대		중간지대		저지대		해안지대		
	노동	소비	노동	소비	노동	소비	노동	소비	
식료비	곡물류	65.38	38.14	58.93	50.09	77.16	60.01	70.55	57.78
	육류	.50	.29	1.50	1.27	4.64	3.61	1.88	1.54
	해산물	.75	.44	1.38	1.18	7.26	5.65	6.54	5.35
	소채류	6.14	3.58	1.81	1.54	2.69	2.09	2.42	1.98
	조미료	1.89	1.10	1.60	1.36	3.43	2.67	2.85	2.33
	기호품	3.76	2.19	2.55	2.17	5.48	4.26	6.33	5.19
	계	78.42	45.74	67.77	57.61	100.66	78.29	90.57	74.17
주거비	5.36	3.13	4.84	4.11	4.02	3.12	5.35	4.38	
광열비	10.18	5.94	5.49	4.67	15.65	12.18	10.77	8.83	
피복비	의복비	5.57	3.25	3.52	2.99	9.31	7.24	9.26	7.58
	기타	5.79	3.37	4.32	3.73	4.31	3.35	4.64	.80
	계	11.36	6.62	7.90	6.72	13.62	10.59	13.90	11.38
문화비	보건위생비	.54	.31	2.76	2.35	3.02	2.35	5.09	4.17
	육아교육비	.08	.05	2.67	2.26	1.32	1.03	4.76	3.90
	교통비	.14	.08			1.07	.83	2.77	2.27
	계	.76	.44	5.43	4.61	5.41	4.21	12.62	10.34
공과금	.21	.13	5.08	4.32	5.90	4.59	6.50	5.32	
총계	106.29	62.00	96.51	82.04	145.26	112.98	139.71	114.42	
1인당금액	29.1	17.0	26.4	22.5	39.8	31.0	38.3	31.3	

자료: 高橋昇,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未來社, 1997), 350쪽.

둘째는 교역의 증가로 인해 해산물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해녀노동의 경제적 가치 상승, 해녀의 소득 증가 → 해안마을의 ‘부’ 증가 → 이러한 ‘부’의 확산, 제주도 농촌의 경제력 상승 → 도일비용, 초기체재 비용, 도일로 인한 각종 기회비용에 대한 부담 가능, 직항로 개설로 인한 도일 비용 → 출가, 도일 증가로 인한 송금액 증가 → 제주도경제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 경제의 상황과 특성을 1930년대 제주도 농촌의 농가경영구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표 9>에서 제주도의 생활비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료비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광열비, 피복비, 주거비 순이다. 문화비와 공과금은 아주 낮은 비율이다. 지역적으로 저지대와 해안지대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 1930년대 중반 경제적 중심지가 해안마을로 이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제 초 해산물의 가치상승, 해녀노동 가치의 상승은 취락의 이동은 물론 제주도 전체에서 富의 중심이 이동되었음을 의미한다. 식료는 곡물류 소비가 절대적이고 해안마을 일수록 해산물 소비비율이, 산간마을 일수록 소채류 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인당 노동과 소비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간지대로 이 지역은 잉여부분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다음은 지역별에 따른 차이에 관하여 제주와 육지지역을 비교하여 생활비를 살펴보자.

제주도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해안마을의 경제력이 가장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내륙지방 중 가장 열악한 지역과 제주도의 가장 앞선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제주도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제주도의 가장 열악한 지역과 내륙의 가장 좋은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2.5배 가량 제주도 산간지방이 뒤져 있다. 평남지역을 제외하면 황해지역이 가장 앞선 지역으로 기준이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과 제주도의 가장 앞선 해안지역과를 비교할 때 식료비는 비슷하고 문화비, 광열비, 주거비는 차이가 난다. 문화비 중 보건위생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적 풍토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표 11>는 황해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내역이다.

<표 10> 제주 및 내륙지방 농민 생활비(1) (1993년)

종별	내륙지방				제주도				
	항해	평남	총남	전남	고지대	중간지대	저지대	해안지대	
식료비	곡물류	60.54	61.86	101.58	74.59	38.14	50.09	60.01	57.78
	해산물	2.44	1.72	2.42	2.00	.44	1.18	5.65	5.35
	육류	2.96	5.38	1.32	.48	.29	1.27	3.61	1.54
	채소류	6.13	5.03	3.72	6.56	3.58	1.54	2.09	1.98
	조미료	1.46	1.29	1.08	.53	1.10	1.36	2.67	2.33
	기호품	3.51	5.43	3.07	2.92	2.19	2.17	4.26	5.19
	계	77.04	80.71	113.19	87.08	45.74	57.61	78.29	74.17
주거비	6.61	5.79	4.11	6.26	3.13	4.11	3.12	4.38	
광열비	28.31	32.721	18.26	8.22	5.94	4.67	12.18	8.83	
피복비	의복비	11.64	14.15	4.72	7.30	3.25	2.99	7.24	7.58
	기타의복류	1.98	4.26	2.30	1.28	3.37	3.73	3.35	3.80
	계	13.62	18.41	7.02	8.58	6.62	6.72	10.59	11.38
문화비	보건위생비	7.54	1.54	1.07	6.49	.31	2.35	2.35	4.17
	육아교육비	.62	3.49	.50	.13	.05	2.26	1.03	3.90
	교통비	.45	1.29	.52	.13	.08	-	.83	2.27
	계	8.61	6.32	2.09	6.75	.44	4.61	4.21	10.34
공과금	6.78	2.39	4.26	4.17	.13	4.32	4.59	5.32	
총계	140.97	146.34	121.06	121.06	62.00	82.04	112.98	114.42	
1인당금액	38.6	40.1	33.2	33.2	17.0	22.5	31.0	31.3	

자료: 위의 책 351~352 쪽

<표 11>에서도 제주도 내부에서만 보면 저지대와 해안지대의 소비수준이 산간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안지역 역시도 표준이 되고 있는 황해도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1910 년이 나 1920년대에 비하여 그 간격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sup>38)</sup>

38)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 11> 제주 및 내륙지방 농민생활비(2)(1939)

지대별 종별	사례 1								사례2(황해도 기준지수 100)								
	내륙지방				제주도				내륙지대				제주도				
	황해	평남	충남	전남	고지	중간지	저지	해안	황해	평남	충남	전남	고지	중간지	저지	해안	
식 료 비	곡물류	43	42	68	62	61	61	53	50	100	102	168	123	63	83	99	95
	해산물	2	1	2	2	1	1	5	5	100	70	99	82	19	48	232	219
	육류	2	4	1			1	3	1	100	182	45	16	10	43	122	50
	채소류	4	3	2	5	6	2	2	2	100	82	61	107	58	25	34	32
	조미료	1	1	1	1	2	2	2	2	100	88	74	36	75	93	183	160
	기호품	2	4	2	2	4	3	4	5	100	105	147	113	59	75	102	96
	계	54	55	76	72	74	70	69	65	100	105	147	113	59	75	102	96
주거비	5	4	3	5	5	5	3	4	100	88	62	95	47	62	47	66	
광열비	20	22	12	7	10	6	11	8	100	116	65	28	21	16	43	31	
피 복 비	의복비	8	10	3	6	5	4	6	7	100	122	41	63	28	26	62	65
	기타	2	3	2	1	5	4	3	3	100	215	116	65	170	188	169	192
	계	10	13	5	7	10	8	9	10	100	135	52	63	49	49	78	84
문 화 비	보건 위생비	5	1	1	6	1	3	2	4	100	20	14	85	4	31	31	55
	유아 교육비	1	2	-	-	-	3	1	3	100	563	81	21	8	365	166	629
	교통비		1	-	-	-	-	1	2	100	286	116	29	18		184	504
	계	6	4	1	6	1	6	4	9	100	74	24	78	5	54	49	120
공과금	5	2	3	3		5	4	4	100	35	63	62	2	64	68	78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4	106	86	44	58	80	81	
1인당금액	-	-	-	-	-	-	-	-	100	104	106	86	44	58	80	81	

자료: 위의 책 같은 쪽

마지막으로 1939년 제주도 해안마을의 조사기록을<sup>39)</sup> 가지고 식민지기 제주도 경제를 결론짓도록 하겠다.

조사된 농가의 총수입은 962엔 92전이다. 이중 해녀수입 : 109.00엔, 魚釣수입 : 2엔 40전, 해녀출가수입 : 122엔 45전(장남처, 차녀가 5~9월 출가), 기타 해산물 수입 : 1엔 60전, 임업조수입 : 11엔 60전, 기타 조수입 : 180엔 (일본으로부터 장

39) 高橋昇, 앞의 책, 372~374쪽.

남, 차남 송금이다

여기에서 보면, 조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조수입의 구성을 보면, 해녀수입과 해녀출가수입, 그리고 도일노동자로부터의 송금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 당시 제주도 경제와 제주도 농가경제는 해녀노동과 출가해녀, 도일노동자에 의한 송금이 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환금작물 재배의 확산으로 농가소득과 소비가 함께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경제는 고립상태였으며 도내의 상업활동도 활발하지 않아 자급자족 성격이 강하였다. 제주도 경제가 고립적이었다는 것은 외부와의 교류는 물론 제주도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교환, 정보교환, 인적교류 등 변동에 영향을 준만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폐쇄적'이었다고 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립적,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장 먼저 쇠신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해녀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무역상의 등장으로 해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해녀들의 생산물인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의 상승과 아울러 해녀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해녀노동의 결과인 해산물의 상품화, 현금수입은 제주도경제의 초석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은 해녀노동을 위주로 하는 해안지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켰고, 나아가 제주도내 촌락의 이동현상을 가져왔다. 종래에는 중산간지대가 넓은 토지와 축력 보유를 기반으로 하여 부와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았는데 교역의 발달에 따라 해안지대로의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안마을로 마을이동이 심화된다.

해녀노동으로 인한 제주도 농촌의 경제력 상승은 제주도 농촌의 유희노동력 기반을 확장시켰고, 아울러 교통 발달로 이미 육지로의 출가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해녀와 농촌노동력이 일본으로 대규모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노동자의 도일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당시 제주도 농촌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것이었다. 대

규모 도입현상으로 제주도내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상승이 나타나고, 남아있던 노약자 혹은 여성노동력의 강화를 초래했다. 이로 인한 노동력 투하방식의 변환으로 재배작물의 변화현상이 생겨났다. 즉 여성노동력 투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나 제충국, 박하, 면화, 고구마 등의 환금작물 재배가 확산된 것이다. 또한 도입 노동자들의 소득은 송금이나 직접 소지하는 방법에 의해 제주도내에 유입되었는데, 그 규모는 당시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이입초과분을 보충시키고 남은 정도의 규모였다 물론 도입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내핍생활을 통해 약간의 저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송금된 현금의 가치는 일본 현지에서보다 제주도 농촌에서 훨씬 높았는데, 이는 제주도 농촌의 현금보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였다. 현금보유의 확대는 구매력 신장을 의미하여 이는 곧 소비규모를 증가시키고 소비형태를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이후 해녀노동이 그 후 현재까지 제주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개인의 생애사적 경험을 토대로 결론지어 보겠다.

80대 중반 고령해녀의 증언에 의하면, 40) 10살부터 물질을 배우기 시작하여 열 일곱에 이미 상군이 되었고 스무살에 결혼을 한 후에도 물질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제주도, 한반도 바다는 물론 東京, 쓰시마, 블라디보스톡 청진 등 안 물질을 위해 안 가본 곳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밭 99개를 샀다. 이중 1/3인 33개의 밭은 4·3 때 낮에는 경찰 밤에는 산사람들로부터 큰아들을 보호하려 팔아서 썼고, 다음 1/3인 33개의 밭은 둘째 아들을 6.25 참전에서 빼내기 위해 팔아서 썼다고 한다. 마지막 1/3인 33개의 밭은 4·3 때 죽은 큰아들을 대신해서 큰손자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자금 보태느라 다 팔아버렸다고 한다. 현재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할망바당’ 41)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 해녀노동은 제주인들의 일상과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활발히 작용하고 있다.

40) 제주도 여성들의 물질에 대한 경험은 2004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가 제주 서울 부산 일본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여성 53명의 생애사 구술자료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세한 것은 제주도, 2004, 앞의 책 참조

41) ‘할망바당’에서 ‘할망’이란 할머니의 제주어이고 ‘바당’은 바다의 제주어이다 즉 할머니 해녀들만이 물질작업을 할 수 있는 바다 작업구역을 말한다. 이 ‘할망바당’의 존재는 체력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는 노령해녀들에 대한 예우를 나타내는 공통체적 작업형태인 셈이다.

## 참고문헌

- 강대원, 『해녀연구』, 서울: 한진문화사, 1970.
- 高橋 昇,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 東京: 未來社, 1997.
- 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の研究』, 東京: 農業綜合研究所, 1950.
- 김영돈, 『한국의 해녀』, 서울: 민속원, 1999.
- 南仁熙, 『濟州農業의 百年』, 제주: 태화, 1987.
- 釜山商業會議所, 『濟州島とその經濟』, 부산: 부산상업회의소, 1930.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도서출판 각, 1998.
- 立正大學日韓合同韓國濟州島學術調査團, 『韓國濟州島の地域研究』, 1988.
- 제주도, 『口述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 파피루스, 2004.
- 제주도, 『濟州의 民俗』, 제주: 삼화, 1994.
- 제주도, 『제주의 해녀』, 제주: 삼화, 1996.
-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7.
-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 태화, 1995.
-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서울: 조선은행조사부, 1948.
-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1929.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全羅南道編』, 1930.
- 朝鮮總督府農商工部編, 『韓國水産誌, 濟州島』, 1910.
- 조선통신사, 『1947년 조선연감』, 1948.
- 泉靖一, 『濟州島』, 제주: 우당도서관, 1999.
- 한림화, 「불타」, 『제주의 해녀』, 제주: 제주도청, 1996, 115~122 쪽
- Hermann Rahn, "The Diving Woman of Korea and Japan", *Scientific American*, 3, 1967.

● 투고일: 2003. 12. 19

● 심사완료일: 2003. 3. 3

● 주제어(key word): 일제하 제주(Jeju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해녀노동(Women Diver's Labor and Income), 제주도 농촌경제의 변동(Economic Fluctuations of the rural society in Jeju)